

“춤은 몸과 에너지로 공간에 그린 그림”

무대 바닥으로 물결이 일렁이는 듯한 조명이 깔리고 공중에는 하얀 천조각이 매달렸다. 긴 머리에 초록빛 옷을 입은 그녀가 무대에 등장, 공간을 가로지르며 열정적인 춤사위를 선보였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국적 현대무용그룹 'WHITE WAVE-김영순댄스 컴퍼니'를 이끌고 있는 김영순씨가 13명의 단원들과 광주에서 첫 공연을 펼쳤다.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한 '페스티벌 오!광주 브랜드 공연'에 초청받은 'WHITE WAVE'는 지난 23~24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Here now so long'과 'SSOOT'을 선보였다.

24일 공연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영순씨는 "안벽주의"를 추구하는 그녀는 당초 작품보다 축약해서 무대에 올린 작품들을 못내 아쉬워했다.

“지난 2007년 초연한 'SSOOT'은 2시간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고, 틈나는 대로 영어회화를 공부하며 미국행을 준비했죠.”

그녀가 미국에 도착해 동지들 틈나는 곳은 유명한 현대 무용가 마사 그라함의 학교였다. 150명 중 5명을 뽑는 장학생에 선발돼 '무플루트 누레예프 스칼라'를 받으면서 춤에 자신이 생겼다.

무용단 'WHITE WAVE'를 창단한 건 지난 1988년. 이후 뉴욕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50여 개가 넘는 레퍼토리를 공연했으며 지난 2001년부터는 덴보댄스 페스티벌 등 3개의 댄스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또 광주를 소개하는 '광월동'을 무대에 올려 CNN에 소개되기도 했다.

“뉴욕에서도 개인 무용단을 꾸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건 더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전 세계 무용단의 작품을 10여년 꾸준히 보다 보니 큰 공부가 되죠. 여러 작품들을 보다보면 상상력이 발동을 해요. 그리고 나만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번에 처음 선보인 공중 무용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와 오랫동안 협업을 진행하며 탄생시킨 작품입니다.”

이번 방문 때 조선대학교 무용과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김씨는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에너지를 표출할 것”을 강조했다.

“춤을 출 때는 그냥 팔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느껴야 해요. 순간 순간 변화되는 것들을 민감하게 캐치해야하죠. 춤은



뉴욕 중심 활동 다국적 현대무용그룹

광주 출신 “고향 부모님께 꼭 보여주고 싶었다”

30분이 넘는 대작이에요. 제 무용 인생 30년을 기념하는 작품을 준비하면서 떠올린 이미지가 '꽃'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태워서 남을 따뜻하게 하는 것.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에 주목했죠. '꽃'과 관련된 다큐들을 챙겨 보며 안무를 구상했습니다. 현대적인 요소와 동양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뉴욕 공연 때 많은 환호를 받았죠.”

젊은 여성 무용수가 전에 의지한 채 공중에 매달려 춤을 추는 'SSOOT'의 배경 음악에는 가사가 있다. 한태수와 양희은의 음성으로 '아무리 봐도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하고 노래하는 장면은 30년 무용인생의 힘들었던 시절을 대변하는 듯도 했다.

광주 출신으로 광주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한 그녀가 미국으로 건너간 건 지난 1997년.

“제가 여섯살 때부터 춤을 쳤어요. 진짜 춤을 추기 위해서는 현대무용의 본고장인 미국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9남매의 셋째딸이에요. 서울로 유학 보내 준 것도 참 큰일인데 유학 비용까지 대달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여중 무용선생으로 근무하며

자기 몸과 몸이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공간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확장되고, 몸과 춤에서 호흡과 생명이 느껴지는 겁니다. 춤에는 정답이 없죠. 이런 걸 바탕으로 자기만의 것을 개척해 내는 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뉴욕에서는 무용수의 체격이 좋네 나쁘네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 무용수들도 사이즈와 웨이트가 모두 다르지만 개인마다 강한 특성이 있어 개성 넘치는 춤을 추는 겁니다.”

김씨는 이번 작품을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광주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었다. 구순인 아버지는 병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올해 여든 셋인 어머니는 그녀의 무대를 지켜보며 기뻐했다.

“초창기 미국에서 힘이 돼 줬던 게 김포공항에서 외할머니가 넣어주셨던 붉은 부직이예요. 춤을 추는 건 니 엄마의 꿈이었다. 네가 세상에 나가서 엄마의 꿈을 이뤄줘라는 말과 함께 건네주셨죠. 엄마의 꿈이 나를 밀어준 거죠.”

김씨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된다는 말에 그 무대에도 꼭 서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페스티벌 오!광주’ 초청 공연 ‘WHITE WAVE’ 김영순 예술감독

화려한 명성 속에 가려진 고통 ‘인형’

선영현 'Pain & Fame' 전

7월28일까지 바리에아트

인형이 주인공인 전시라기엔, 동화 속에나 존재하는 예쁘고 공주풍 드레스로 한껏 멋을 부린 행복한 표정의 인형들을 기대했다면 선입견일까.

작품 속 인형들은 슬프고 우울하다.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다. 그래서 신선한 충격과 함께 눈길을 사로잡는다.

선영현씨가 다음달 28일까지 광주시 동구 불로동 바리에아트에서 여는 'Pain & Fame'전은 짧은 작가의 참신함을 엿볼 수 있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는 인형을 소재로 한 작품 22점이 전시된다. 평면 작품 뿐만 아니라 설치 작품도 전시돼 관람객들 입장에서 보는 즐거움도 적지 않다.

“인간 욕망 표출의 대상으로, 인형



'Narcissism'

을 통해 인간의 지향점이자 절대적 가치의 세계를 조망해보고 싶었다”는 작가의 말처럼 작품 속 인형은 보기에 아름다운 대상만은 아니다. 인간의 내적 욕망을 표현하는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결국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명성 속에 숨겨진 고통을 담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작품 곳곳에 담겨 있는 이유

기도 하다. 홍익대 미술대학원에 재학중인 선씨는 이번이 두번째 개인전이다. 그만큼 신선하면서도 '튀는'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전시다.

제 25회 대한민국회화대전과 제 12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에서 입선했다. 문의 010-5259-8686

/김지은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60주년·역사관 개관 기념전

‘남도 예술에 스미다’ 7월31일까지

전남대학교가 개교 60주년 및 역사관 개관 기념으로 교내 서화 기획전을 개최한다.

전남대는 오는 27일부터 7월31일까지 전남대 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남도 예술에 스미다’를 주제로 전남대가 소장하고 있는 서화 213점 중 예술적 가치가 탁월한 명품들을 선정해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화 41점을 비롯해 서예 16점, 서양화 6점 등 총 63점의 작품을 전시하는 이번 기획전은 공예 윤두서, 소치 허련, 염재 송태희, 의재 허백련, 미산 허형, 남농 허건, 동강 정운면으로 이어지는 한국 남화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자리이자 퇴계 이항,

고봉 기대승, 다산 정약용, 매천 황현, 설주 송운회, 송곡 안규동, 소전 손재형, 장진 하남호, 용곡 조기동, 학정 이돈홍 등 학자 예인의 목향 유한 서예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한국 화단에 인상주의적인 자연화풍을 정착시킨 오지호와 그의 아들 오승우, 오승운 및 수재화의 한 획을 그은 김연근의 작품을 통해 서양화도 일부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편 전남대 역사관은 개교 60주년을 맞아 전남대는 구 본부이자, 기존에 평생교육원으로 활용됐던 용봉관을 리모델링한 시설로, 27일 오후 1시30분 개관식 행사를 갖는다. 역사관은 대학의 역사 전반에 관한 기록



허련 작

과 사진, 자료 등 전남대 60년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기능을 비롯해 역사자료를 수집·관리·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립합창단 ‘신나는 여름 합창 축제’ 29일 문예회관

광주시립합창단(지휘 이준) 기획 연주회 ‘신나는 여름 합창 축제’가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신나는 여름 합창 축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시립합창단 뿐 아니라 광주문예회관이 운영하는 하모닉스여성합창단(지휘

정기주), 광주사랑의부부합창단(지휘 윤영문), 광주아버지합창단(지휘 윤원중),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지휘 이현숙)이 찬조출연한다.

연주 프로그램은 ‘여름 냇가’, ‘숲속’ 등 여름을 테마로 하는 곡들이다. 레퍼토리는 ‘아름다운 세상 다 합

께 나뉘요’,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사랑하면 할수록’, ‘아디에무스’, ‘도라지 꽃’, ‘De Animals a Comin’ 등이며 피날레 곡은 참여 합창단이 다 같이 부르는 ‘아름다운 강산’이다. 티켓가격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613-824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축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주류서비스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